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제68회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 의결· 장학금 전달· 법률 설명회 등 진행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며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대표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소재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과 공사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대표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 대정부 건의를 분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신규 물량 창출,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역 건설사의 실질적인 일감 확보로 이

여져야 한다며,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 확대를 적극 추진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특별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호남 조계선 변호사가 '장기간 공사정지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회원사 우수 임직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협회는 현재까지 총 286명에게 3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건설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상근 기자

시공사부도 위기 넘고 준공 성공

농협은행, 익산 '오투그라데 뉴퍼스트' 정상 준공 이끌어

익산시 남중동 '오투그라데 뉴퍼스트' 아파트가 시공사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준공에 성공했다. 금융권과 지자체, 보증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중단 위기를 넘긴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투그라데 뉴퍼스트는 지난 13일 사용승인을 받으며 준공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1만3740㎡, 연면적 4만5806㎡ 규모로 지상 3개 동, 총 298세대로 조성됐다.

남초 제일건설의 부도로 지난해 12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 우려가 커졌으나, 이후 민·관·금융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됐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업 안정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공사 중단 직후 중도금 대출 유예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였고, 민원과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 사업장 신뢰 회복에 힘썼다.

또한 중도금 대출 추가 지원과 이자 유예, 금리 인하, 잔금 대출



선제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조치를 통해 공정을 회복과 공사 재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례는 회생 절차 중인 건설사 부도 사업장을 직접 준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위험 조정, 협력업체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성과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준공으로 협력업체 연쇄 피해 방지, 지역 건설산업 신뢰 회복,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기관이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사, 인공지능으로 농업가뭄 선제 대응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업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가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저수지와 하천 등 지표수가 단기간에 마르는 이른바 '돌발 가뭄' 현상이 빈번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지표수 중심 대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를 활용한 수자원 다변화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신규 지하수 개발은 적합 지역 탐사와 인허가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긴급 가뭄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

공사는 전국 4만여 개 농업용 공공관정에서 수집한 이용량과 수위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지하수 수급 현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 예측 모형을 활용하면 지하수 부족량과 가용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가뭄 발생 이전부터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2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인공지능 모형을 더욱 고도화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실증을 거쳐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인공지능 기반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기존 관정의 성능 개선도 병행한다. 전국 51개 농어촌용수 구역을 대상으로 농업용 공공관정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개선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10개 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5개 지구씩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군·구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를 보충하는 '지하수 함양 사업'도 추진해 물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대응 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개발공사는 9일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관리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는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관리사업장 현장소장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사례'를 주제로 △법의 전반적인 이해 △중대재해 사례와 시사점 △사고 원인 및 미흡 사례 분석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첨단 제조·자동차 산업 전시회 참관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제조 및 자동차 산업 전시회 참관에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제조산업전'과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에 회원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에는 회원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최신 전자제조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첨단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 현장에서는 전자제조 공정 자동화 기술을 비롯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참가자들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최신 기술 적용 사례와 산업 동향을 공유했고, 일부 기업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역 설명회를 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학생문화회관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전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전세희 전북중기청장을 비롯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아이디어파트너스, ㈜유니 등 운영기관 관계자와 창업에 관심 있는 도민, 대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스타멘토 창업특강, 사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선배 창업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특강에서

는 창업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극복 사례, 사업과 노하우 등이 소개된다.

이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설명에서는 테크(Tech)와 로컬(Local) 트랙으로 나눠 분야별 지원 방향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참여 희망자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템과 역량에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활동 자금, 전문가 멘토링, 사업과 자금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사 말미에는 선발 기준과 지원 규모, 사업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종료 후에는 별도의 상담부스를 통해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한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까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는 사전 등록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